

다산포럼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 평론가

온 가족이 떠나는 휴가 여행에 개구쟁이 소년이 홀로 집에 남겨져 소동을 벌이는 '나 홀로 집에' 시리즈는 20세기 말 대표적인 가족 코미디 오락 영화였다. 그러나 이제 '나 홀로 집에'는 현실 속 '인 가 구' 형태로 21세기 지구촌의 대세가 되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비명을 지르는 소년 얼굴의 클로즈업 포스터는 현재 일상의 다양한 얼굴들로 대체된 셈이다. 2018년 4월 초 발표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는 540만 명으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드러났다. 20·30세대 독신 가구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노인 1인 가구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2010년대 이후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패러다임이 깨지면서 미국과 영국은 30%에 가까운 1인 가구가 대표적인 주거 방식이 됐다. 일본과 프랑스는 이미 1인 가구가 30%대를 넘어 다양한 지표들로 지구촌 삶의 방식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밥' '혼영' '혼행' (혼자 여행) 등 혼족 생활 문화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니어 버킷리스트

지구촌을 돌며 선선한 가을바람을 타고 날아온 '나의 마지막 슈트' (The Last Suit, 2017, 파블로 솔라즈)도 고풍화 현실에 접속하는 시니어 로드무비이다. 불편한 오른쪽 다리를 '오래된 친구 추레스'라 부르며 곧 90세를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여행길에는 기차를 타고 홀로코스트 기억이 직면하는 과정을 절묘하게 풀어낸다.

로드무비 '나의 마지막 슈트'

바이올린과 아코디언 연주곡에 맞춰 여럿이 어깨동무하며 춤추고 환호하는 흥겨운 이미지로 열린 영화는 아브라함을 위한 가족사진 촬영으로 이어진다. 내일이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그는 온 가족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기념작으로 증손들을 거느린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런데 증손녀 미카엘라가 보이지 않는다. 단테 사진을 꺼리는 고집불통 미카엘라를 뺀 놓고 사진을 찍자고 해도, 그 또한 고집불통이기에 반항적인 아이를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딸들에게 냉정해도 유독 미카엘라를 애지중지하는 그는 아이가 요청한 지문 확인 가능한 아이폰 6를 살 돈(8백 불)을 주기로 합의하는 거래 과정을 거쳐 6인 증손 모두 함께 하는 가족사진을 찍는다.

폴란드에서 아르헨티나로 탈출해 온 그는 재단사로 일하며 딸들을 키웠다. 그

러나 세월이 흘러 딸들은 출가했고, 이제 그는 집을 처분한 유산을 딸들에게 나눠 주고 집을 정리하는 중이다. 나이가 들면서 나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이 대다수지만, 자신은 남은 인생을 기쁘게 살겠다고 작정한 독립 존재인 척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장애 다리를 잘라 내라는 권유나 요양원에서의 삶이 달갑지 않은 그는 걸으로는 당당해도 지쳐 있다. 그런 와중에 슈트 한 벌을 발견하는데, 그 순간 그의 남은 인생 여정은 로드무비로 급진전된다. 그 슈트는 오래전, 그러니까 70년 전 홀로코스트 재앙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해 준 친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물품이다. 이제 그는 모험적인 '혼행'을 결단한다. 너무 아프기에 지워 버린 막강도 언젠가 출몰하는 또 다른 형태의 기억이다.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결단하면서 강렬하게 떠오른 70년 전 약속은 유일한 버킷 리스트 항목이 되어 그의 온 마음을 사로잡는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가출한 그는 한밤중에 친구의 손녀를 찾아간다. 연극 연습을 하던 그녀는 할아버지와 오랜 우정을 담보로 내건 그의 강렬한 부탁에 못 이겨 마드리드행 비행기표를 예약해 준다. 그러나 그 여정은 만만치 않다. 마드리드 호텔 방 창문을 잠그지 않은 탓에 여행비로 가져온 전 재산을 도둑맞는다. 오래전 유산 문제로 가족을 떠나 마드리드에 사는 딸에게 사과하며

약간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부녀기간 화해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한 문제도 발생한다. 입국 심사나 기차역에서 나치 치하에서 금지어였던 '폴란드'란 말을 하지 않고 쪽지에 적어 소통하는 데, '독일을 발로 밟지 않는다'란 요구 조건이 필수 항목이다. 사라진 과거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길에서 선대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를 이해하려 애쓰며 돕는 독일의 인류학자 잉그리드와의 만남은 그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어 준다.

90세 어느 노인의 '혼행길'

그밖에 '혼행길'에서 만난 다른 이들과의 관계는 그가 유연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풀어 가는 로드무비의 매혹을 선사해 준다. 이를테면, 비행기 옆자리에 서 만난 빈털터리 청년, 딸과 화해를 통해 도움 받기를 조언하며 격려해 준 호텔 주인, 그리고 고통스러운 홀로코스트의 기억으로 기차에서 졸도한 후 폴란드 병원에서 만나 게토였던 로즈카치 안내해 준 간호사와의 일시적 동행은 그를 온종은 시니어로 변모시킨다. 그런 맥락에서, 이 영화는 1인 가구 대세가 된 이 시대, 버킷 리스트로 작동하는 '혼행길'이 시니어 로드무비로 퍼져 나갈 조짐을 보여 주는 반가운 지표이기도 하다.

청춘 특·특



김아림  
남부대 식품영양학과 2학년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변해가듯 대학도 옛날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사회에서 걱정했던 부정적인 캠퍼스 문화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술 문화'이다.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내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해야 할 시간에 술로 대학생활을 즐기는 모습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도, 물론 술을 즐기는 것이 모두가 보기엔 좋지 않거나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기분 좋게 즐기자는 뜻에서 생긴 문화

'대학의 묘미는 술?' 맞는 말일까

가 요즘에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

과도한 술 문화는 학교 축제 때 주로 볼 수 있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학교에서 같은 대학 학생들은 물론 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는 주점과 축제 뒷풀이다. 다함께 즐기자는 목적에서 시작한 주점은 갈수록 학교의 돈벌이 대상이 되어가고, 축제 일로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갖는 자리인 뒷풀이는 그저 술판이 돼 버렸다.

사실 대학 축제보다 더 논란과 문제점이 많은 술자리는 MT 때이다. 모든 대학들이 MT 때 논란이 될 만한 일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MT 때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이제 입학했는데 술이 정도는 먹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술을 권하고 마시게 한다. 절제하는 술자리가 되면 문제 없겠지만, 권주를 넘어서 입학 축하주 등 별주를 마시게하

는 일명 '똥 군기'가 예외 없이 등장한다. 이 정도면 술을 빙자한 폭력에 해당한다.

술을 강요해서 마시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후에 문제가 더 크다. 올해만 해도 한 여학생이 술을 강제로 마시고 만취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엘리베이터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된 사고가 있었다. 또, 최근 10년간 음주 사고로 숨진 대학생 수만 22명이다. 술을 강요해서 마시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술을 잘하지 못해 거부하면 '술을 빼는 거냐'며 그 자리에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곤 한다. 또 그 이후로 학교에서 소외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과도한 술 문화가 낳은 사고들은 대부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온다.

이러한 술문화는 한 번 겪어 본 학생들이 그 밑 학번 학생들에게 넘겨주고 그 밑으로 또 넘겨주고 하는 순환을 반복하

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앞서 말한 과도한 술 문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일까. 이제는 정말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같은 학과 선배배나 동기끼리 서로를 소개하고 알아가며 친목을 다지는 적당한 선에서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도를 지나친 술 문화는 앞으로 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축제나 MT 등의 행사를 할 때 간단한 음주거부는 나쁘다고 만 할 수 없다. 하지만 학업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함께 즐기는 행사이니 만큼 학생들이 서로 조금 더 알아가고 편한 술 문화로 소외당하는 학생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전공과 관련된 현장 체험 학습,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학교생활을 함께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

기고



배윤식  
광주시 건축주택과장

'광주다움'이란 도대체 뭘까? 민선 7기 '광주다움'의 함의를 이해하느라 광주시 부서마다 고민이 깊다. 광주다움이란 광주만의 독특한·고유한 것을 찾아내 이를 도시 전역에 확산시키고 경제적으로 접목해 광주 경제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이런 고민 아래 '광주다운 도시' 모델 발굴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현재 광주의 도시 문제와 도시 디자인, 건축 방향 등 도시 계획의 미래 비전으로 논점 거리는 단연 무엇으로 도시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여러 사례를 통해 중·소 도시는 1~2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도시 정체성을 만들 수 있지만, 광주와 같은 광역시급 이상 도시는 교육, 문화, 일자리, 도시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합·융합해야 도시 정체성이라는 정수를 뽑아낼 수 있다

광주 도시 건축의 새 그림

는 것이었다. 도시 전체적인 이미지와 프로젝트에 의해 도시다움이 표출된다고 본다.

일반 규주의 구마모토 현은 도쿄, 오사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그 원동력은 건축 디자인과 도시 문화를 결합시키는 구마모토 아트 폴리스(Art polis) 사업이다. 1980년대 급격한 공업화에 따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도시사였던 호소카와 모리히토는 '남는 것은 문화밖에 없다'는 가치를 내 걸고 베를린 건축전을 직접 방문, 아트 폴리스 사업을 시작했다. 공공 시설의 계획 첫 단계부터 창의적인 디자인과 지역주민이 참여해 구마모토현만의 독자적인 건축 디자인을 창출하도록 한 것이다.

아트 폴리스 프로젝트 참가 1호 작품인 구마모토키타 경찰서는 계단이 거꾸로 서 있는 듯한 모양새에 정면은 모두 반투명 유리로 장식하는 '역발상의 디자인'으로 명소가 됐다. 한 계 점에서 출발했던 아트 폴리스는 이제 선으로 연결되고 구마모토 전체를 아트 폴리스로 색칠하는 면으로의 전면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도시를 바꾸는 디자인의 힘이 여기에 있다.

광주 건축 디자인의 현 주소는 어떨까? 그동안 광주는 건물의 기능에 충실한 나머지 도시 정체성에 대해 기여도가 매우 낮았던 게 사실이다. 이제, 개인 건축도 건축주의 전유 공간에서 사회적 공유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문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는 도시 정체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건물들은 서로 융합하고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광주 도시 건축도 혁신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한다. 그 첫 걸음은 디자인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서 획일화된 아파트 공급을 지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대신 미래라이프 스타일(1인 가구, 고령화)을 감안한 저층 주거 유형 개발이 검토될 것이다. 고유한 삶의 원형질을 살리기 위해 도심권의 유서 깊은 주택지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월산동, 산수동 등 구릉 주택은 지형을 살려 다양한 주거지 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층 주거 지역 중 상향지양과 조례 등 행정 제도도 연차적으로

정비된다.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건축사협회, 전문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공 기관, 민간 시설, 종교 시설 등의 외벽 디자인, 건물 배치, 특화된 부대 시설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모델을 개발할 것이다. 특히,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하고 에너지를 제로화 할 수 있는 디자인이 검토된다.

또한 지역 청년 건축가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과 지원단을 운영한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디자인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그곳은 대부분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의 기억에서 나온다'고 한다. 광주에서 자란 청년들이 광주에서만 얻을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 한다.

이제 광주만의 웃음 디자인하여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가 되었다. 광주에 걸맞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제껏 세상에 없었던 큰 그림을 디자인해보자. 공존, 공감, 소통으로 모두를 깨우는 휴머니즘 도시 디자인이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社說

여수 경도 매매 계약서 조건 없이 공개해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미래셋 컨소시엄과의 매매 계약서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열람하는 전남도의회들에게 비밀 유지 각서를 받는다는 조건이어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경도 매매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시기 등을 논의 중이다. 이는 지난 7월 23일 전남도의회 업무 보고 당시 의원들이 계약서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다음 회기까지 공개 여부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공개 시기는 현재 공석인 전남개발공사 사장 취임 이후 신임 사장과 논의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신 사장 내정자는 오는 5일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공개 방법은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중 열람을 원하는 의원들에게 비

밀 유지 각서를 받은 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 안보나 국익과 관련한 기술 거래 사안도 아닌데 비밀 유지 각서를 쓰고 열람하라는 것은 사실상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냐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이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는 경도 해양 관광 단지 조성 사업은 경도 매각 과정에서 전락 부재로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혈값 매각'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개발 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해 경도와 연결되는 연륙교 건설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특혜 논란은 전남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자초한 것이다. 게다가 대규모 예산까지 지원되는 만큼 매매 계약서는 조건 없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박인천 회장 자택 광주 시민 문화사랑방으로

생전에 예술인들을 사랑했던 금호그룹 창업주 고(故) 박인천 회장의 자택이 시민 문화 공간으로 개방된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1984년 작고한 박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자택을 시민문화 공간으로 꾸며주기로 했다.

오늘날의 금호 그룹이 있기까지의 지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생전에 문화 융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고 박인천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함이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57가에 자리 잡은 박 회장 자택은 박 회장과 부인 이순정 여사 등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던 살림집이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곳에 임방울 선생과 의재 허백련 선생 등 수많은 서화의 명인과 국악인들을 초청해 이들의 예술 활동을 격려했기도 했으니, 남도 문화 예술의 산실이라 불리도 좋았다.

1931년 한옥 형태로 처음 지어진 이

집은 1952년 이후 몇 차례의 증·개축에 이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1958년엔 기존 사랑채를 헐고 새로운 터에 2층 양옥 형태의 사랑채를 신축했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큰 사랑채는 현재 근대건축물로 꾸며주며, 오늘 오후 5시 개관식을 갖고 내일부터 금호시민문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시민에게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오늘날의 금호 그룹이 있기까지의 지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생전에 문화 융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고 박인천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함이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57가에 자리 잡은 박 회장 자택은 박 회장과 부인 이순정 여사 등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던 살림집이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곳에 임방울 선생과 의재 허백련 선생 등 수많은 서화의 명인과 국악인들을 초청해 이들의 예술 활동을 격려했기도 했으니, 남도 문화 예술의 산실이라 불리도 좋았다.

1931년 한옥 형태로 처음 지어진 이

無等鼓

지금 국회 앞에서는 300여 일 이상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매일 다니는 길이었는데도 필자는 그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다만, 아주 오래 전의 일이라는데 왜 아직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한 마음이 있긴 했다.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1987년까지 부산시에 있었던 부랑인 강제수용소다. 1975년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인 시설로 처음 설립됐는데 한때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문제는 1986년 아시아게임과 1988

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기차역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시장에서 음식을 먹던 무고한 일반 시민까지 끌고 갔다. 부랑인이 아닌 자라도 인원수만큼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은 매년 20억 원씩 국고 지원을 받았다. 복지원에서는 이들을 데려가 불법 감금과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이에 저항하

면 굶고 때렸으며 심지어는 죽이고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형제 복지원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조사 결과, 12년 동안 551명이 사망했고, 일부 시신은 300~500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 나갔다.

그런데 이 같은 증빙자료도 불구하고 이 사장 박인천은 7번의 재판 끝에 1989년 3월 징역 2년 6월의 형만 받았다. 황령회 등 만적용되고 불법부금·폭행·살인 등에 대해

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년 만에 이를 다시 판단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됐다. 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는 5일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 '비상 상고'를 권고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비상 절차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인권 유린을 이번호 제대로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적폐 청산이 아닐까. 아직도 고통을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 주기를 바란다. /서울취재본부=박지영 부장 jk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